

# 대한항공 욕심내는 통합 4연패, 삼성화재도 못한 대기록

한선수 “아무도 못한 통합 4연패 하고 싶다”

7연속 우승 삼성화재도 정규리그 1위 뺏겨

프로배구 남자부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대한항공이 다음 목표로 4시즌 연속 우승을 내걸었다.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은 초창기 왕조를 일궈낸 삼성화재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3-2(23-25 13-25 25-22 25-17 15-11)로 꺾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통합 우승이란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우승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항공은 2020~2021시즌, 2021~2022시즌에 이어 이번 2022~2023시즌에도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승리했다.

우승을 차지한 뒤 대한항공 주장 한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아직 아무도 하지 못한 통합 4연패를 목표로 하고 싶다”며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2005년 V-리그 출범 후 남녀부를 통틀어 4연속 통합 우승은 없었다.

초창기 적수가 없었던 시기 삼성화재는 2007~2008시즌부터 2013~2014시즌까지 무려 7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했다. 이 시기 통합 우승을 위한 조건인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지 못한 때가 몇 차례 있었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는 4연속 통합 우승에 실패했다.

삼성화재는 2008~2009시즌 박철우와 윤봉우를 앞세운 현대캐피탈에 정규리그 1위를 뺏겼다가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을 거쳐 우승했다. 2010~2011시즌 삼성화재는 김학민과 한선

수가 활약한 대한항공에 정규리그 1위를 내주고 현대캐피탈에 이어 3위로 주저앉았지만 이후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에서 전승 행진을 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하며 최강자로 군림한 삼성화재는 2014~2015시즌 OK금융그룹의 전신인 OK저축은행에 패하며 왕좌에서 내려왔다. 세계 최고 수준 기량을 갖춘 시몬에 송명근과 이민규, 송희재까지 보유한 OK저축은행은 레오가 버틴 삼성화재를 챔피언결정전 3전 전승으로 일축했다.

OK저축은행에 당한 완패 후 삼성화재는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우승권에 머물러 있다.

삼성화재에 이어 처음으로 3연속 통합 우승에 도달한 대한항공이 한선수의 말대로 삼성화재에 버금가는 왕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OK저축은행 시몬이 한국을 떠난 뒤 출공 1~2위를 유지하며 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항공은 2016~2017시즌 준우승, 2017~2018시즌 우승, 2018~2019시즌 준우승,



3일 충남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에서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 선수들이 우승메달에 키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리그가 조기 종료된 2019~2020시즌 정규리그 2위에 오른 뒤 이후 내리 3번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햇수로 8년째 우승과 준우승을 오가며 정상

급 경기력을 유지해온 대한항공이 다음 시즌 처음으로 4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다면 삼성화재에 견줄 수 있는 강팀으로 한국 배구 역사에 이름을 새길 수 있을 전망이다.

## ‘백투백홈런’ 김하성, 마수걸이 홈런포…끝내기 승 전인

세 타석 침묵 끝에 9회 끝내기 홈런포 작렬…2023시즌 13타수 5안타 1홈런, 타율 0.385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는 김하성(28)이 시즌 첫 홈런포를 가동해 경기를 끝냈다.

김하성은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파크에서 열린 2023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9번 타자 겸 2루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7회말 무사 2루 득점 기회를 맞은 김하성은 7구 풀카운트 승부 끝에 바깥쪽으로 낮게 흘러 나가는 슬라이더를 건드려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4회말 타석에서는 3구째 시속 151km 몸쪽

뉴스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파크에서 열린 2023 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9회말 끝내기 홈런을 치고 기뻐하고 있다.

높은 패스트볼을 쳐 투수 땅볼로 더그아웃으로 돌아왔다. 7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3구째 몸쪽 패스트볼을 쳐 내야 플레이 아웃당했다.

침묵하던 김하성을 깨운 건 동료 데이비드 달의 홈런포였다. 9회말 3-4로 끌려가던 샌디에이고는 선두타자 달이 좌월홈런포를 쏘아 올려 경기 균형추를 맞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달에 이어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5구째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 한 가운데 물리자 이를 놓치지 않았다. 스트라이크존 한 가운데로 날아온 시속 145km 고속 슬라이더를 타격한 김하성은 왼쪽 담장을 넘기는 백투백 솔로 아치를 그려 팀에 5-4 끝내기 승리를 안겼다.

김하성은 이날 홈런으로 13타수 5안타 1타점 2득점, 타율 0.385가 됐다.

## 프로축구, 관중도 골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30경기 유료관중 33만103명

프로축구 K리그가 관중과 득점 면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K리그1(1부) 5라운드 종료 기준 30경기에 유료 관중 33만103명이 들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1003명이다. 1만1003명은 2013시즌 1만1206명 이후 K리그 최다 기록이다.

관중 증가와 함께 골도 많이 터지고 있다.

시즌 초반 다득점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30경기 중 13경기에서 양 팀 합계 3골 이상이 나왔다.

또 30경기에서 76골, 경기당 평균 2.53골이 터졌다. 2.53골은 경기당 2.60골을 기록한 2016시즌에 이어 2위 기록이다.

관중을 흥분시키는 경기 초반 득점과 경기 막바지 득점이 늘어났다.

전체 76골 중 전반 10분 이내 터진 득점은 9골로 K리그1 역대 최다. 2위인 6골(2018, 2016시즌)보다 3골 많다.

76골 중 후반 45분 이후 나온 득점 역시 8골로 2016시즌(9골) 이후 최다다.

연맹은 “경기 초반 이른 득점으로 관중의 몰입도를 높이고 경기 후반 극장골로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스

## LA오픈 3위 김효주,

세계 10위→9위 올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에서 올 시즌 최고 성적인 공동 3위를 기록한 김효주(28)가 LPGA 랭킹을 끌어올렸다.

김효주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스테이츠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치러진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친 김효주는 올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김효주는 지난 2월23일 혼다 LPGA 타이틀랜드에서 공동 10위, 지난달 2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효주는 4일 발표된 볼레스 세계 여자 골프 랭킹에서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번 대회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던 전인지는 9위에서 11위로 미끄러졌다. 4언더파로 이번 대회 공동 25위에 오른 고진영은 3위를 유지했다. 박민지가 21위를 유지했고 최혜진은 한 계단 떨어진 25위가 됐다. 김세영도 1위 내려간 31위에 자리 잡았다.

이번 LA오픈에서 우승한 신예 인휘닝(중국)은 114계단 올라서 김세영에 이어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스

## 태극마크 내려놓은 양의지…박수 보낸 이승엽 감독

WBC 마치고 대표팀 은퇴 의사 밝혀…이승엽 감독 “국가대표로 뛰며 히로에라크 느꼈을 것”

현역 시절 ‘국민타자’로 불린 이승엽 투수 베이스 감독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주전 포수 양의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양의지는 지난달 30일 미디어테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표팀 은퇴 의사를 전했다.

양의지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마지막 국가대표였다.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무척 아쉬웠다”며 “베테랑들이 나서서 조금 더 잘했다면 결과가 바뀌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투수의 주전 포수로 활약한 양의지는 리그 최고의 포수로 올라섰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표팀의 불박이 안방마님으로 뛰었다.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단 양의지는 그야말로 대표팀의 ‘단골 손님’이었다. 2017년 WBC,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12, 2021년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23 WBC 이전까지 양의지는 국제대회에서 타격으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제대회 통산 타율이 0.169(83타수 14안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WBC에서는 달랐다. 3경기에서 타율 0.400(10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특히 한일전에서는 일본 선발 투수 다르빗슈 유(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선제 투런포를 때려내기도 했다.

양의지의 분전에도 한국은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양의지도 씁쓸함을 삼켰다. 2023 WBC를 앞두고부터 국가대표 은퇴를 생각했던 양의지는 아쉬움 속에 태극마크를 내려왔다.

이승엽 감독은 양의지의 국가대표 은퇴 소식에 “선수 본인의 의사는 존중해줘야 한다. 그동안 국가대표로 뛰면서 히로에라크를 많이

느꼈을 것”이며 “베테랑으로서 마지막에 힘있게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도 2013년에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선수 입장은 당연히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의지의 마음을 헤아렸다.

이 감독은 현역 시절 대표팀 4번 타자로 뛰며 인상깊은 장면을 수차례 연출해 ‘국민타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8회 때려낸 투런포는 여전히 한국 야구사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다.

양의지뿐 아니라 김광현(SSG 랜더스), 김현수(LG 트윈스)도 2023 WBC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가운데 이 감독은 이들의 은퇴가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길 바랐다.

이 감독은 “베테랑들이 국가대표에 많이 뽑힌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린 스타들이 많이

## KIA 또 약재…김도영, 발가락 골절로 최대 4개월 이탈

KIA 타이거즈 김도영(20)이 부상으로 개막 2경기 만에 이탈한다.

KIA는 3일 “김도영이 오늘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재검진을 실시, 왼쪽 중족골(새끼 발가락) 골절로 어제 검진과 동일한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입원한 김도영은 4일 핀 고정 수술을 받고 5일 퇴원할 예정이다. KIA는 수술 후 경기 출전까지 약 12~16주를 예상했다.

김도영은 지난 2일 SSG 랜더스전에서 4회 주루 중 3루를 밟다 왼쪽 발목을 접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도영은 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루가 지난 이날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재차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KIA에도 김도영에게도 대형 약재다.

2022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김도영은 팀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유망주다.

지난해 시범경기 타율 1위(0.432)로 잠재력을 보여준 김도영은 정규시즌에서 103경기 타율 0.237, 3홈런 19타점 13도루를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프로 첫 해를 마무리한 김도영은 절치부심하며 데뷔 2년 차 시즌을

준비했다.

올해 시범경기에서 타율 0.295, 2홈런 9타점으로 예열을 한 그는 지난 1일 SSG와 개막전에서 5타수 1안타 1도루를 작성했고, 부상을 당한 날도 3타수 3안타 1타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최대 4개월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됐다.

KIA는 주포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에 승선하지 못했다.

개막 직전에는 장정석 전 단장이 프리에이전트(FA) 협상시 선수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됐다.

무거운 분위기로 시즌을 연 KIA는 활력소 역할을 바랐던 김도영의 이탈로 더 험겨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뉴스스